

한우협회, 부산에서 즐기는 한우 숯불구이축제 성료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10월 13일~17일 5일간 부산 해운대구 KNN광장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추석 명절 이후 한우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통해 한우 생산기반 안정화를 도모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품질 높은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할인 판매와 숯불구이존이 마련됐다. 행사장은 음식점 대비 반값 이상 저렴하게 한우고기를 즐기 위한 소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외에도 다양한 레크레이션, 무대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진행됐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공급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값을 지지해 소비자·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우자조금, 소비자와 소통~ 도심 축제에 한우가 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9월 23~24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17 조이올팍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한우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즉석에서 바로 구운 한우스테이크를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트를 던져 명중하는 한우 부위에 따라 해당하는 경품 증정, 한우캐릭터와 기념사진 및 판박이 스티커 부착을 하는 등 남녀노소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우캐릭터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 참여자에게 한우 체험권을 증정하여 한우불고기 수제버거 만들기 체험하는 시간도 가져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은 “매해 가을 일상 속 지친마음을 위로해주는 음악축제인 조이올팍페스티벌을 통해서 한우와 소비자들이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한우가 소통할 수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돈자조금, '제4회 한돈데이' 개최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돈데이(10.1)를 하루 앞둔 9월 30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제4회 한돈데이(1001)'를 성황리 개최했다.

'함께해요 한돈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연휴가 시작되는 첫 날 놀이공원을 찾은 관람객들로 더욱 성황을 이뤘다.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돈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열려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돈데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한돈 나눔 행사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돈자조금은 추석을 맞아 한돈 육전과 직접 빚은 송편 1001인분을 시민과 소외계층에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한돈자조금 이병규 위원장은 "한돈데이는 우리돼지 한돈이 밥상위의 국가대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사랑 받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한돈농가 스스로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 우유사랑 나누기 실천 치즈체험·봉사활동 전개



한국낙농육우협회(전북도지회)는 지난 9월 23일 호성보육원(전북 전주 소재)을 찾아 치즈체험 및 봉사활동 전개를 했다.

지난 해 전북도지회가 개시한 '사랑의 우유 전달사업'에 이어, 올해도 우유사랑나누기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스트링치즈, 치즈과일꼬치를 만들어보는 체험과 더불어, 치즈가 없어진 우유반죽 김치전을 비롯한 중식과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 제공되었다. 낙농가가 직접 이동보육 시설을 방문하여 치즈가공체험 행사를 갖는 '찾아가는 6차산업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심동섭 전북도지회장은 "우유의 소비가 정체되고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자와 함께하며 우리 낙농산업에 대한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매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전북도지회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우자조금, 육우전문판매점 지원
12개업체 선정...최대 1,000만원까지

우리땅에서 자란 우리소!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육우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육우전문 판매점 신설, 혹은 변경을 원하는 매장점주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계획안 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지원금은 매장의 홍보 전단지 제작 등 홍보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다. 또한 지원받는 매장은 육우자조금위원회의 ‘육우 인증점’ 마크 부착을 비롯하여 메뉴판, 간판 등에 육우 취급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육우 전문 판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이 육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육계협회, 2017 육계인 상생전진대회
‘마음열어 상생을, 뜻모아 발전’



한국육계협회는 9월 27일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2017년 육계인 상생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마음을 열어 상생을, 뜻을 모아 발전용’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상생전진대회는 농가와 계열업체간 상생협력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육계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고 육계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코자 마련됐다.

이번 상생전진대회에서는 육계산업 성장에 기여한 대표 8명에게는 한국육계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닭고기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시 발생, 일부 부도덕한 유사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 논란, 살충제 계란파동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차단방역 실천 등을 통한 육계산업 체질개선,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사양관리기술 및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간 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 및 잔존 불공정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봉협회, 벌꿀 시음·시식 홍보행사 제8회 문경 약돌 한우축제에서



양봉협회 문경시 지부는 지난 9월 9일, 제8회 문경 약돌 한우축제에 참가해 시음 및 시식행사를 비롯 양봉산물 홍보부스 운영, 소비자들이 직접 벌꿀 채밀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국내 벌꿀의 우수성과 벌꿀 채밀과정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경시 영강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최고일 국회의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문경시 박명영 지부장, 문경시 지부 회원 약 70여명, 문경시민 등 관람객 포함 약 15,000여명이 대거 참가하여 본 축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양봉협회 박명영 문경시지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봉산물을 직접 현장에서 맛 볼 수 있도록 하고, 벌꿀의 채밀과정, 결정원인 등 소비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하는 등 직접적 만남을 통해 벌꿀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층 더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양봉산물의 소비촉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계란자조금,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달리는 계란마라톤 성료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와 세계일보가 공동주최한 '2017 계란마라톤대회'가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계란마라톤대회는 10월 13일 세계 계란의 날을 기념해 계란의 영양학적 가치와 계란 섭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라톤 참가자 1,065명과 가족, 일반 시민을 포함해 약 2천여 명이 계란마라톤을 즐겼다. 또한 2017년을 상징하는 계란요리 2017인분을 먹으면서 뜻깊은 마라톤 행사를 진행했다. 개막식을 간단하게 가진 뒤 바로 본 대회가 열렸다. 종목은 5km, 10km, 하프 코스, 그리고 단체전으로 구성됐다.

이날 대회장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한 3대 가족, 외국인 참가자, 장애인 마라토너, 계란산업 농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처음 열린 계란마라톤대회가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계란 농가와 소비자들이 함께 달리며 서로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앞으로 계란의 좋은 정보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소비로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